

앞 말

任那·加羅·南加羅·金官는 고대조선사에서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나라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호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특히 任那는 과거 일본인에 의하여 심히 왜곡되고 락동강이서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한 일본의 식민지와 같이 묘사된 바가 있다. 任那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기타의 문제도 남아있다.

秦韓·慕韓는 倭五王의 自稱稱號중의 都督管區속의 소국명으로 5 세기의 『宋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불명한 상태이다. 또한 고대조선중족명의 韓·穢(濊)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는듯하며 그들의 倭에로의 이주문제도 숙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고고학적성과를 참조하면서 사건을 기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제 1 절, 任那·加羅·南加羅·金官

조선남부해안지대의 인민은 繩文時代에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열도에 이주하고 농경문화와 금속기를 전하여 舊石器時代로부터 고대에로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그 내실은 자세하지 않으나 3 세기에는 일본열도는 倭國으로 알려졌다. 4 세기에는 九州로부터 關東에 이르기까지 前方後圓墳이 출현하고, 특히 야마도(奈良縣)의 三輪山麓에는 현저한 大型前方後圓墳과 도시형 유적기라고 말할수 있는 卷向유적이 조영되었기때문에 야마도에 倭王이 거주하고 각지의 소국군과 연합정권을 형성하고있었다고 생각된다. 소위 야마도왕권이라고 불리우는것이 그것이며 물론 통일국가에로의 길은 아직 멀었다.

조선남부해안지대에서는 락동강하류역의 발전이 눈에 띄었다. 서안의 金海大成洞古墳群과 동안의 釜山東萊古墳群의 출현이 그것을 증명하고있다. 발굴조사를 주도한 申敬澈氏(「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点描」, 『釜大史學』1995 年。慶星大學校編 『金海大成洞古墳群』1, 2000 年)에 의하면 3 세기말에 「金海型木槨墓」가 전대의 목곽묘를 파괴하면서 조영되고 부장품으로서도 陶質土器·鐵製甲冑 등이 새롭게 발견될뿐만아니라 厚葬과 사람 牛馬의 殉葬이라는 전대에는 볼수 없었던 습속도 나타난다. 부산동래에서도 또 같은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申氏는 4 세기에는 김해와 부산에서는 신세력이 건국하였는데 양국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쯤 김해에는 加羅 (『三國志』 狗邪를 계승) , 부산에는 居柒國이 성립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申氏는, 「金海型木槨墓」에서는 巴形銅器와 鍬形石製品·紡錘車形石製品·筒形石製品 등의 倭系유물이 출토하고, 한편 락동강하류역의 筒形銅器가 야마도주변

에서 분포하는 사실을 두고 그것은 兩王權간의 교류를 증명하는것이라고하였다. 또한 락동강 하류역에는 北九州系와 山陰系의 토기가 출토하며, 筒形銅器가 일본열도각지에서 출토하는 것과 왜계석제품속에서는畿内에서는 볼수 없는것도 존재하는 사실로 미루어 락동강하류역은 일본각지와 다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삼국시대의 한반도남부와 북부구주의 상호교류에 관한 고고학적연구」, 『韓國民俗文化』 16, 2000年) .

『日本書紀』 欽明 2年 (541) 夏 4月條에 의하면 百濟聖明王 (聖王) 은 卓淳 (창원) · 己呑(창원부근) · 南加羅의 삼국을 총칭하여 任那라고 부르고있다.

南加羅는 6 세기의 국명이고 4 세기에는 加羅였다. 加羅와 居柒山國는 정치적으로 일체로 볼수 있고 다른 2 국은 加羅와 린접한 나라이기때문에 본래의 任那는 加羅를 맹주로 하는 정치련맹체로서 任羅加羅라고도 불리였고 맹주의 加羅王은 任那加羅王이라고도 칭하였다고 생각된다. 고고학적자료에 의하면 居柒山國은 5 세기중엽쯤에 신라에 통합되었다고 볼수 있기때문에 6 세기사료에는 任那에서 탈락되고있는것이다. 『三國史記』 居道傳에는 脫解尼師今代에 居道가 詭計를 꾸미고 居柒山國을 급습하여 멸망시키였다고 기록하고있으나 400년에 고구려군이 任那加羅從拔城(『廣開土王碑』) 점령이후의것이다. 從拔城은 居道가 주재한 張吐와 동일지인 가능성이 크며 399년에 倭는 居柒山國북부의 從拔城을 전선기지로 하여 신라에 침입한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日本書紀』는 天武 10年(682)記定本을 기초로 하면서 각종사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리용하면서 律令制國名을 好字 2字로 개정한 704년이후에 (鎌田元一 『律令公民制의 研究』 書房, 2001年) 구체적인 편찬작업에 착수되었다. 왜냐하면 각지방 국명을 통일하여야 력사서술을 지리적공간에 따라 전개할수 있기때문이다.

제 1 차작업은 단편적인 사건을 정리하는것이였다. 이것을 原本으로 假稱하면 그것은 아마 수십종에 달했을것이다. 이 단계로부터 그 내용은 701년에 제정된 大寶律令의 정신에 따랐다.

대보률령은 倭王을 日本天皇으로 정식으로 선포하고 주변나라는 일본의 蕃國으로 규정하였다. 「百濟本記」· 「百濟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 단계에 작성되었는데 그것은 백제사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남아있었던 단편적인 조선관계사료를 윤색한것이다.

제 2 차작업에서는 原本들을 종합하면서 또다시 윤색을 가하면서 일단의 편년체통사를 만들었다.이 때 高句麗王世系를 참조하여 새로운 왕을 보충하고 왕통을 一系로 하였다. 이것을 稿本으로 가칭한다.

제 3 차작업은 稿本을 漢籍을 리용하면서 또한번 내용을 윤색하여 稿本과 原本을 대비하면서 分注를 달아서 720년에 완성한 단계이다. 편찬작업의 전단계는 대보률령 작성책임자였던 藤原不比等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신라사절과 접촉하면서 알게 된 隋唐代에 사용된 「三韓」의 어구와 김유신의 사적을 이용하여, 645년의 「乙巳之變」의 시작이야기를 김유신의 일화를 모방하여 만들고 그 무대를 「三韓進調」의 마당으로 날조하였다. 『日本書紀』는 「三韓進調」의 정신을 조일관계에서 관통시킨, 말하자면 대보률령을 력사화한 사서인것이다.

이와 같은 「日本書紀」의 기사에서 종래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된것이 「任那」 문제였다. 지난시기 任那는 락동강이서와 전라도전체, 충청도의 일부까지를 포함하는 「日本天皇」의 직할지와 같이 묘사되어왔다. 이러한 리해는 현재는 부정되어있지만 아직 정확한 해명을 보지 못하고있다. 530년을 전후하여 백제와 신라는 북에서는 련합하여 고구려와 대결하였으나 남에서는 락동강에서 섬진강사이에 산재한 소국들을 대상으로 쟁탈전을 벌리고있었다. 당시

그 소국들은 김해의 加羅(南加羅로 되었다)가 아니라 고령의 加羅를 맹주로 하는 정치련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이후 소국련맹체는 加耶라고 총칭되었다고 생각할수 있다. 위기에 빠진 加羅는 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에 응하여 倭의 繼體정권은 加羅에 有非跋를 파견하고 任那에는 近江臣毛野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加羅를 제압하여 安羅(함안)에 이르렀으며, 신라는 任那를 통합하였다. 백제의 加耶지방제압에 대하여서는 다음 2 사료가 참조된다.

(A), (繼體紀 25 年冬 12 月分注) 其文(「百濟本記」云,太歲辛亥 <531 年> 三月, 師進至于安羅, 營于乞毛城.

(B), (顯宗 3 年) 是歲, 紀生磐宿禰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宮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糧,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於帶山攻. 於是生磐宿禰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國. 由是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A)는 百濟가 安羅까지 군사진출하였다는것, (B)는 潤文이 많고 「加羅」를 「任那」로 개필하였고 (稿本단계) 487년이란 年紀도 맞지 않다. 紀生磐는 「百濟本記」에서는 有非跋란 인물로 나타나며, 欽明紀 5 年(544 年)2 月條에 의하면 聖王의 뜻을 여기여 530 년대전반기에 加羅의 那奇他甲背 등에 휘말려 백제에 반항한 왜인이며 백제는 이들을 축출하여 加羅를 제압한 것이다 (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 岩波書店, 1983 年) .

530 년대에 들어서서 倭와 신라는 安羅를 경계로 하여 대결하게 되었는데, 본래 친백제의 입장에 있었던 倭는 安羅에 倭臣들을 상주시켜 백제를 돕도록 하였다. 이것이 「在安羅諸倭臣」(欽明紀 15 年冬 12 月條)인데, 「百濟本記」는 이것을 「安羅日本府」로 개서하였고 稿本는 「任那日本府」로 변경시켜놓았다. 이렇게 하여 任那는 加耶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해설되고 「日本天皇」의 직할지로 해석되었던것이다.

화제는 되돌아가지만 『宋書』에 의하면 5 세기에 倭의 讚·濟·珍·興·武의 5 王이 백제의 유도하에 南宋에 견사하고 南宋외교를 추진하였다. 5 세기중엽에 珍는 六國都督諸軍事를 제수받았는데 그 都督管區중에 加羅·任那가 보인다. 이 加羅는 고령의 加羅가 명백하기때문에 이무렵에는 김해의 加羅는 南加羅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것이 틀림없는 것은 앞에서 올린 6 세이기의 欽明紀의 기사가 증명해주고있다. 고령세력이 왜 加羅를 칭하게 되었는가는 불명하나 아마 광개토왕시기에 고구려가 任那에 진출한것과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그 구체적과정은 알수 없으나 이 때 加羅本家は 고령으로 이동한것으로 보인다. 5 세기 전반기부터 김해에서는 왕묘가 조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방증해준다고 생각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이 인용한 崔致遠撰 「釋利貞傳」에 加羅 (大伽倻) 와 南加羅 (金官國) 를 형제관계로 전하고있는것은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것일것이다. 建元元年 (479) 에 加羅荷知王 (嘉悉王) 이 독자적으로 南齋로 통교한 사실은 加羅가 소국들의 맹주가 되어있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田中俊明氏 (『大加耶連盟의 興亡과 「任那」』 吉川弘文館, 1992 年) 는 6 세기초에 嘉悉王이 于勒를 시켜 加耶琴十二曲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 곡명은 소국의 국명을 표시하는것으로 해석하고 그속의 上加羅都를 加羅로 下加羅都를 多羅로 비정하고 加羅의 南齋코스는 섬진강코

스로 보았다. 氏가 下加羅都를 多羅로 본것은 安羅가 안들어있기때문인것으로 생각되나 加羅와 南加羅의 국명관계를 고려하면 下加羅都는 역시 南加羅로 보는것이 온당할것이다. 5세기 후반에는 加羅는 소국들의 맹주로 등장하고있었고 이 무렵에 총칭 加耶(加羅)가 생긴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加羅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진강코스가 아니라 가장 편리한 락동강코스를 취하였을것이다.

南加羅는 일반적으로는 金官國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金官는 南加羅의 一邑에 지나지 않았다. (繼體紀 23年-529年是月條. 실은 529年~532年の 일괄기사). 그것이 南加羅의 국명으로 둔갑한것은 680년대라고 추정되고있다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 吉川弘文館, 1996年). 그러나 7세기중엽에 新羅武烈王이 南加羅王後孫의 庾信의 누이와 결혼하여 次代의 文武王을 낳고있기때문에 무열왕비의 姓이 요구되어 庾信家은 새롭게 金(新金)氏를 칭하게 되고 그 때 金氏와 관련하여 南加羅를 金官國으로 개칭한 가능성이 크다. 法興王紀 19年條에 「金官國主」항복기사가 있으나 그로나 그것은 金庾信玄孫長淸作 『行錄』에서 『三國史記』 편자가 삽입한것이기때문에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 婆娑尼師今紀 23年秋 8月條의 南加羅王인 「金官國首露王」가 신라왕의 부탁을 받고 音汁伐國과 悉直谷國의 국경문제에 개입하였다는 기사도 金庾信이 武烈王을 잘 도와서 「三韓一統」을 이룩하여다는 사실을 과거에 투영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일련의 기사는 武烈王·文武王代에 편찬된 新羅史書에서 부가된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 2 절, 秦韓·慕韓

5세기 倭王珍는 都督諸軍事를 자칭하고 그 管區속에 秦韓·慕韓을 포함시키었다. 田中俊明氏 (「6世紀前半의 東아시아의 動向과 倭國」, 吉村武彦編 『繼體·欽明朝와 佛教傳來』 吉川弘文館, 1999年)는 慕韓을 日本式前半後圓墳이 발견된 전라도의 榮山江流域에 잔존한 馬韓으로 보고 秦韓을 신라주변에 존재한 소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秦韓의 실재라는것은 아무 근거가 없기때문에 그의 주장에는 수긍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慕韓이 실재한 소국의 이름으로 보는 그의 견해도 설득력이 없어진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다른 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高句麗廣開土王·長壽王代, 고구려는 백제를 치고 牙山灣계선에 이르렀고 신라를 종속시키면서 신라북부를 령역화하여 迎日灣북쪽 興海까지 이르렀다. 新羅本紀는 이러한 사실을 삭제하고 2세기에는 鷄立嶺과 竹嶺을 열고 300년에는 강원도의 比列忽(안변)·牛頭州(춘천)에 까지 이르렀으며 이후 령토의 변화는 없다고 서술하고있으나 신라의 이 지방진출은 6세기의 일이다. 地理志는 신라북부가 상당한 기간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것을 그대로 밝히고있다. 신라가 강원도지방까지 진출한 시기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사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 (1) (訥祗麻立干 39年-455年)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 (2) (慈悲麻 17年-474年) 秋七月, 高句麗王巨連, 親率兵攻百濟, 百濟王慶, 遣子文周求援, 王出兵救之, 未至百濟已陷, 慶亦被害.
- (3) (炤知麻立干 3年)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城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

軍與百濟·加耶援兵，分道禦之，賊敗退，追擊破之泥河西，斬首千餘級。

(4) (同 6 年 - 484 年) 秋七月，高句麗侵北邊，我軍與百濟合擊於母山城下，大破之。

이상의 기사에 대하여서는 상설한바가 있기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1)·(3)·(4)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등장하지만 고구려본기·백제본기에는 대응기사가 없다. 이것은 극히례외적인 현상이며 편자의 단순한 오류라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세기사는 편자가 최종단계에 백제의 국명을 부가한것으로서밖에 생각할수 없다. 그 주원인은 (2)에 백제의 文周가 신라를 구원하려고 하였다고 쓰고있는데 있는데 이 기사는 본래 신라사료에는 없었으며 그것은 고구려·백제관계를 정리한 백제본기의 보조원전을 전거로 하고있다. 백제 文周王紀에 동일기사가 있지만 당시 백제수도 漢城이 포위된 조건에서 文周가 신라구원을 위하여 출동할 여유란 전혀 없었다. 반대로 신라는 고구려의 별동대로 충청도에 나가서 백제공격에 나서고 있었다. 文周는 신라를 구원하려간것이 아니라 신라와 싸우기 위하여 출동하다가 漢城함락과 蓋鹵王피살이란 사태속에서도 목숨을 건진것이다. (2)를 근거로 하여 (1)이 조작되고 (3)·(4)에 백제가 부가된것이다. 그러나 (3)·(4)는 그 구체적지명을 보아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대고구려전을 전하는 기사로 볼수 있다. 이때 신라는 加羅와 동맹하여 彌秩夫(영일만북방)에서 泥河까지 고구려군을 축출하여 신라의 발전기를 열었던것이다.

秦韓이란 이런 형편에서 보면 그것은 고구려가 점령한 신라북부지방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다. 그렇다면 慕韓는 고구려가 탈취한 백제땅이라고 해석해야 할것이다. 영산강유역에는 4~5 세기에 大型甕棺墓가 유행하여 그것은 백제묘제와 다르기때문에 아직 독자성을 유지한 세력이 존재하였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李鎔賢氏 (「〈梁職貢圖〉百濟國使條의〈旁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999 年) 에 의하면 『梁職貢圖』百濟國使條에·前羅·斯羅·止迷·痲連·上己文·下枕羅等付之」이란 司書가 써져있으나 타에는 소견이 없는 止迷·痲連이그 소국일것이다. 그러면 누가 秦韓·慕韓이란 국명을 안출하였는가 가 문제로 되는데 倭는 그런 지식도 의도도 있었다고는 생각할수 없기때문에 그것은 백제밖에 없다. 백제에 있어서 이 지역은 고구려와 대결하여 반드시 탈환해야 할 땅이었던것이다. 그를 위하여서는 광개토왕시기의 사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럴 때가 되면 珍이 자칭한 지역에 왜병을 도입할 사태도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珍의 자칭칭호에는 백제의 그러한 의도가 반영하고있었다고 추측된다.

「秦」는 『後漢書』의 辰韓의「秦之亡人」설을, 「慕」는 잃었던 舊馬韓땅에 대한 백제의 정을 반영하여 안출한 用字일것이다.

제 3 절, 韓·穢와 倭國의 秦氏·漢氏

秦氏와 漢氏는 「秦」·「漢」의 用字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후세에 중국계를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왜국에 이주한 남부조선민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秦」의 訓는 「h a t a」설도 있으나 最古의 訓讀用例는 『萬葉集』 2399 番의 「秦不經寢」로서 이 경우는 「秦」는 「h a d a」로밖에 읽을수 없다. 秦氏의 倭稱을 太秦 (우즈마사) 로 부르는것도 그것이 여러 「勝 (마사)」를통솔하는 「貴勝」를 의미하기때문이다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考證』 上, 吉川

弘文館, 1962年). 「漢」의 訓은 「아야」인데 그 근거로서 거론되고있는것은 『廣開土王碑』 문중의 「安羅人戍兵」을 「安羅人の戍兵」이란 名詞로 읽고 倭의 별동대라고 해석하면서 安羅에서 많은 사람이 이주해왔을것이라고 추측하데서 나온 견해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면서 점령한 성에 자기내의 羅人(邏人-巡邏兵)과 戍兵(守備隊)를 배치하였다는 獨立句인데 그 「安羅人戍兵」의 해석이 잘못했을뿐만아니라 任那주민이야 말로 倭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는것을 무시하는 견해인것이다.

고대의 조선반도중남부는 주로 韓族의 거주지로 알려져있으나 穢(濊)族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穢族은 강원도로부터 함경도에 걸치는 동해안지역과 중국동북지방의 송화강류역에 거주한 「狩獵, 특히 漁撈」에 종사한 종족이라고 설명되어왔으나 (三上次男 『古代東北아시아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年). 武田幸男氏(『高句麗史와 東아시아』岩波書店, 1989年))는

『廣開土王碑』에 광개토왕이 백제를 치고 略來한 民이 「新來韓穢」라고 불리워있는것을 중시하여 그 위에 『三國史記』와 중국사료 등도 참조하여 穢族은 「新羅王都의 곧 북까지 남하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脊梁山脈의 먼 서방의 서해안가이까지 진출하고있으며 의외에 넓은 활동범위를 가지고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었다. 또한 氏는 광개토왕의 「舊民」중의 「東海賈」에도 주목하여 그것은 「옛부터 穢族(沃沮族을 포함)의 漁撈활동에 기반을 두어온 「商賈集團」이기도 하며 그 商賈의 길은 멀리 중국에까지 통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연원은 활동적인 商賈集團이기도 하였던것이다. 『三國志』·『後漢書』에 의하면 穢族은 狩獵과 獸皮의 交易, 養蠶·農業을 業으로 삼았을뿐만아니라 畜産과 무기제작 등의 수공업도 활발히 행하였으며 『三國志』 弁辰條의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에 의하면 철의 交易를 둘러싸서는 弁辰지방에도 진출하고있었다. 穢族은 본래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또한 농지도 협조하였기때문에 그들의 조선반도중남부에서의 이주도 성행하였다고 생각된다. 碑文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있으나 『三國志』 韓傳에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皆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 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라고 기록되고있는데 여기에 「韓·濊疆盛」·「興兵韓·濊」라고 한 필법으로 보면 穢族은 그저 강원도주변의 주민만을 가리키고있다고만 생각할수 없다. 穢族은 비교적 자유로히 활동범위를 넓혀 그속에서도 소국분립상태로 있었던 弁韓에서의 이주는 가장 용이한것이였을것이다. 그리고 流移民였던 穢族은 농경민으로서보다 漁撈·狩獵·牧畜·手工業·商業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것이다.

남부조선의 穢族속에서는 倭國에 이주한 사람도 반드시 있었을것이다. 그것을 증시하는것은 『隅田八幡神社人物畫像鏡』이다. 그 鏡銘의 판독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으나 癸末年(503年)에 乎(男)弟王(繼體)이 意柴沙加宮에 있었을 때 斯麻가 오래도록 봉사할것을 념원하여 開中費直와 穢人今州流의 2人을 보내여 이 거울을 만들게 하였다는것이 그 대략적인 의미이다. 鏡銘에 의하면 倭國에서의 穢人の 존재는 확실하며 今州流의 배후에는 수많은 穢人을 상정하여도 좋을것이다. 이 「穢人」을 어떻게 읽었는가는 맹백치 않으나 三品氏(前揭書)는 「穢」를 「아야」라고 훈독하였다. 다른 더 똑똑한 자료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크다고 보인다.

5세기 倭王의 珍는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

國王」을 자칭하였는데 여기에는 백제의 의도가 담겨져있었다는것은 앞에서 말하였다.이것을 보면 백제에 있어서는「韓」이란 고구려가 탈취한 땅을 지칭하고있는것을 알수 있다.그러나 481년에 신라가「秦韓」을 회복하고 비슷한 시기에 백제도「慕韓」을 완전히 령토화하고 나아가서 6세기후반에 加耶땅은 신라의 령토가 되었기때문에 「韓」에 대한 백제의 인식이 달라졌다. 應神紀 6年是歲條의 「東韓之地」란 원사료에서는 530년대에 백제가 加羅에 진격하여 탈취한 7城을 의미하는것이며 欽明紀 5年 11月條의 「南韓」이란 백제가 531년까지 점령한 남부야지방을 가리키고있다. 이것을 보면 백제에 있어서 「韓」이란 신라가 탈취한 舊加耶지방이며, 그 땅의 주민은 「韓人」이 되는것이다. 여기에 加耶는 韓으로 되고 倭에서는 「韓」의 訓이 「가라」로 된 리유가 있다.

加耶人이 韓人라고 총칭되게 되면 韓人과 穢人를 구별할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선 穢人이 5세기후반부터 말에 아야씨라고 칭하게 되고 그 뒤 6세기중엽까지에 韓人는 하다씨라고 부르게 되었다. 「hada」란 穢人에 대한 다수과를 의미하는것이다.

韓族의 하다씨가 「秦」字를 쓰게 된것은 조국이 멸망하였기때문에 “出自를 중국계로 고치였기 때문인것인데 그 때 같은 「韓」字를 가진 「秦韓」(『三國志』)를 참조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하여 하다씨=秦氏가 성립하고 뒤따라 아야씨가 漢氏로 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후언하면 隋唐代부터 중국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를 「三韓」으로 일괄하여 부르게 되었다(盧泰敦「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年). 이렇게 하여 조선삼국전체가 「韓國」라고도 인식되고 「가라」의 뜻은 차차로 확대되어 드디어는 唐을 지칭하는것으로 되었다. 『萬葉集』 4240·4262의 遣唐使관계의 天平勝寶 2年의 2首가 그것이다.

맺음말

필자가 여기에 다룬 문제는 일본학계의 통설로 되어있는 고대일본의 「東夷의 小帝國」론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任那·加羅·南加羅·秦韓·慕韓에 대한 문제는 그속에서도 반드시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중요사항이다. 줄건이 어느 정도 그 과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수 있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최근의 락동강하류역의 고고학조사의 성과에 힘입어 새롭게 생각되는바를 피력하였다. 많은 조언을 기대하는바이다.

마지막으로 개개의 사항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4세기의 任那는 金海의 加羅를 맹조로 하고 창원부근의 卓淳·己呑, 부산의 居柒山國을 포함하는 정치련맹체였다. 그러나 5세기중엽쯤에는 고령의 加羅가 任那를 포함하는 광역의 맹주가 되고 여기에 총칭 加羅(加耶)가 성립하게 되고 金海의 加羅는 南加羅라고 불리였다. 南加羅가 金官國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7세기의 일이다. 秦韓·慕韓는 5세기에 고구려가 신라·백제에게서 탈취한 땅을 백제측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부른것에 불과하다. 일본에 이주한 남부조선주민의 2대세력인 秦氏과 漢氏는 각각 韓族과 穢族의 지배층의 姓氏이다.

任那·加羅·南加羅·金官·秦韓·慕韓·韓·穢

日本 朝鮮大 高 寬 敏

略歷

- 1940 년, 日本 大坂에서 出生
- 1959 년 4 월, 京都大學教入學
- 1964 년, 京都大學文學部卒業
- 1967 년 3 월, 同大學修士過程終了
- 1967 연 4 월부터 朝鮮大學敎 歷史地理學部에서 근무, 敎授를 거쳐,
- 1999 년, 退職, 同校非常勤講師

著作

- 1996 년, 『三國史記의 原典的研究』
- 1997 년, 『古代朝鮮諸國과 倭國』
- 2001 년, 『倭國王統譜의 形成』
- 2005 년, 『古代東아시아史論考』
- 2005 년, 「고구려의 編史事業과 백제·신라·왜」(『高句麗研究』21, 서울)

翻譯

- 1986 년,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要 旨

고대조일관계사의 이해에 대하여서는 조선·한국측과 일본학계사이에 아직 심각한 차이가 있으며 양국학자 개개연구자사이에도 여로 차이가 가지가지로 생기고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日本書紀』·『續日本紀』, 중국의 『宋書』·『隋書』, 그리고 물론 조선의 『三國史記』 등의 사료비판이 불충분한데에 있으며 또한 『廣開土王碑』 등 금석문사료에 대한 해석이 각이하기때문이다. 필자는 최근년간 이런 기본사료에 대한 비판적검토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으며 특히 문헌사료에 대하여서는 그 원사료의 탐색과 그 편찬과정을 밝히는데 힘써 나름대로의 고대조일관계사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해왔다.

여기서는 최근년간에 진행된 락동강류역에 대한 고고학적성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그에 립각하여 고대조일관계사에서 중요사항으로 되는 조선의 소국명과 종족에 대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간편을 기하여 자세한 고증은 필자의 전저에 넘기였기때문에 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는바이다.

개개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4 세기의 任那는 金海의 加羅를 맹주로하고 부산의 居柒山國, 창원부근의 卓淳國· 己吞國를 포함한 정치련맹체이며 5 세기중엽이후는 고령의 加羅國이 任那를 비롯한 여로 소국들을 종속시킨 소위 加耶지방의 맹주가 되고 金海의 세력은 南加羅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南加羅가 金官國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7 세기이후의 일이다.

秦韓·慕韓는 영산강류역의 명칭이 아니라 5 세기에 고구려가 신라·백제에게서 탈취한 땅을 백제측에서 지칭한 지명에 지나지 않다.

倭국에 이주한 二大세력인 秦氏와 漢氏는 남부조선주민의 二大종족인 韓族과 穢族을 통솔한 집단의 지배층의 姓氏인것이다.